특별기고

거울과 교육환경

정 기 연
주필

교육은 인간유기체가 환경과의 교호작용에 의해 바람직한 방양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환경은 바람직한 환경이어야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없는 것은 교육 활동이라 할 수 없다. 출입문의 거울은 집안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보게 돼 있어 누구나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고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출입하게 되는데 거울이 교육환경으로 한몫하고 있다.

그런데 홍콩사람들의 풍습은 거울이 잡귀를 물리친다고 생각하고 있다니 미신적이라 생각하면서도 원시인들이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본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됐다. 우리는 남의 모습은 볼 수 있어도 자기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거울이 없이는 알 수 없다. 따라서 거울은 우리의 용모를 단정히 하고 미모를 아름답게 하는데 큰 구실을 하는 교육환경이다. 요즈음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거울 역할을 해 스마트폰을 보며 화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내 모습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손질하고 가꾸는데 말없이 가르쳐주는 스승과도 같은 것이 거울이다.

거울은 우리의 생활 주변 화장대, 화장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정거장 등 곳곳에 설치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는 거울을 볼 때마다 용모를 단정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나를 보며 다짐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이며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임을 다짐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나대로 잘 생겼고 잘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이 있음을 다짐하는 것은 거울 앞에서 내가 나를 성공의 길로 가르치는 교육이다.

거울은 말 없는 하나의 시설환경이며 도구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말없이 바른 방향으로 고쳐가야 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거울의 안내대로 자기의 용모를 단정히 아름답게 꾸며 가고 있다. 따라서 교육하고 있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거울은 필수적인 교육환경이라 할 수 있다.

필자의 재직 중 교문 게시판 담당 교사가 게시물 제작에 대해 걱정을 해서 교문 게시판을 거울 판으로 하고 학생들이 등굣길이나 하굣길에 교문 게시판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나의 희망 나의 다짐을 하게 했다. 거울 뒷면은 철판으로 돼 있어 필요한 게시물을 자석으로 붙이게 돼 있었다. 게시판을 거울 게시판으로 만든 후 학생들이 게시판의 글을 보기도 했지만 자기의 용모 단정을 위해 게시판에 접근하는 것을 보았으며 거울 게시판은 편리하게 이용됐었다.

똑같은 거울을 보면서도 유관심으로 보는 것과 무관심으로 보는 것은 다르다. 교육환경은 유관심적인 환경이어야 하므로 막연하게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면서 나의 희망 나의 다짐을 하게 하는 거울을 보는 목적과 자세 지도를 했었다. 우리의 모습인 용모의 생김새는 거울을 보고 알 수 있어 바르게 고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은 어떤 것일까?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마음의 거울을 보고 아름다운 마음 바람직한 마음으로 가꾸어 갈 텐데, 거울이 내 얼굴에 묻은 오물을 지적하듯이 내 마음에 묻은 오물을 지적해주는 것이 바로 마음의 거울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나를 보고 참되 거라, 착해라 하시며 격려하고 바른길로 인도하고 내 생각과 행동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들이 나의 마음의 거울이다. 나의 잘못을 보고 지적해주고 바른길로 안내하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바로 내 마음의 거울이다. 우리는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과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이란 교육환경 속에서 교호작용을 하며 성장한다. 거울은 맑고 깨끗해야 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때 묻지 않은 교육환경으로서 거울이 돼야 하며, 때 묻지 않은 거울을 보며 나의 용모를 바르고 단정히 하고 내 마음의 거울인 부모 형제 스승의 가르침과 다정한 친구의 조언을 들으며 몸과 마음의 거울을 보며 살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면서 성공하는 나를 만들자.

독자기고

가족의 안전을 위해 대피계획을 세우자

권 석 현
연등119안전센터 소방사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1만4천여건 으로 1천6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아파트 화재의 인명피해 주요 원인은 연기흡입 및 화상, 뛰어내림이었으며 5년 간 아파트 화재 사망자 행동분석에 따르면 대피 중 사망자의 수가 꽤나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나뿐만아니라 가족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아파트 화재,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자.

최근 소방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아파트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새로운 행동요령을 알아보자.

바로 "불나면 '살펴서' 대피" 이다.

화재발생 장소와 불길, 연기 등 상황에 맞게 살펴서 대피하도록 하는 행동요령인 것이다.

아파트 공간 내 경량 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먼저 우리가족 안전을 위해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 피난시설과 대피경로를 조사한다.

잠깐 주의를 기울이면 보이는 소화기, 완강기, 유도등, 유도표지, 대피공간 등 여러 피난기구·설비의 위치를 확인하고 개수를 파악하는 것이다.

유사시 당황하지 않고 활용한다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여러 화재상황을 가정해 행동요령을 연습한다.

가족 간 역할을 정해 119에 직접 가상신고해보기, 호흡기를 젖은 수건으로 막은 채 낮은 자세로 대피해보기, 사전에 알아보았던 다양한 대피시설을 활용해보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피난계단으로 내려갈 때의 시간 체크해보기, 비상구 방향을 숙지하기 등 충분히 일상에 녹여 많은 연습을 할 수 있다.

현재 전국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는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각 관할 아파트를 돌며 지속적으로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을 지도·점검을 하는 중이다.

아파트 입주민과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며, 함께 하는 작은 실천과 관심이 모인다면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족과 소중한 이웃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불나면 살펴서 대피합시다! 평소에 연습한대로!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사 장 이문수
발행·편집인 이가영
부 사 장 기백관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서울지사본부 (우)05385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58번길 16-12 102호
전북지사본부 (우)5592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사면 연천2길 69-1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